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valend inks two LPG newbuildings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Evalend shipping으로부터 40,000CBM급 LPG선을 2척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4,550만달러이고 인도기한은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중공업그룹, '수소 드림' 첫발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우디 아람코와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현대오일뱅크는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LPG를 수입하여 블루수소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을 진행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Seaspan 'back with a vengeance' in \$900m newbuildings deal

Seaspan Corp가 최대 10척의 1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10척이 모두 발주되면 총 계약금액은 9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이며 최근 3개월 내 27척의 신조선을 발주(총 계약금액은 30억달러 상회)하는 셈이라고 보도됨. 건조사는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Boxships may be headed into supercycle, owners say

컨테이너선 상황이 수개월째 개선세를 보이면서 'Super-Cycle'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됨. Freightos Baltic Index는 4,092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363포인트 대비 3배 가량 올랐다고 보도됨. 2021년도 시작부터 3개월째 수급이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3년 Super-Cycle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US energy secretary taps \$40 billion loan program to rev up innovation

US Energy Secretary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됨. 400억달러중 85억달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 지원금액이라고 보도됨. (Upstream)

ExxonMobil positive on portfolio, capex and returns

미국의 슈퍼 메이저 ExxonMobil이 현재의 포트폴리오 자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2021년 CAPEX 규모를 160~190억달러로 제시했다고 보도됨. 2025년까지 연간 CAPEX는 200~250억달러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보도됨. Guyana, Permian, Brazil 등 Upstream 내 강한 성장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도됨. (Upstream)